

학생 생활지도, 교수의 책임이어야 하는가

李 商 燮

(延世大 英語英文學科)

얼마 전 한 졸업생이 필자를 방문했다가 때마침 장학금 신청 기간이라 분담 지도교수인 필자를 찾아와 개인 사정을 늘어놓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 것을 보고는 “아니 선생님, 이런 일도 하세요?” 했다. 교수에게 찾아와서는 으레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주고 받던 아득한 옛 시절에 대학을 다닌 그로서는 심각한 제목의 책을 몇 권 쓰고 어렵게 들리는 과목들을 가르친다는 머리 흰 교수가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냐?”, “자취를 하나, 하숙을 하나?” 따위의 질문을 수십 명 학생들에게 반복하면서 서류에다 계속 바쁘게 적어 넣는 꼴이 안 스러웠던 모양이다.

필자 자신도 그의 놀라움 섞인 질문에 상당히 놀랐다. 교수들이 이른바 지도교수란 직분까지 맡은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그 동안 교수들은 학생 지도하는 일을 교수라면 으레 맡기로 되어 있는 교수 본연의 일거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필자가 놀란 것은 ‘교수가 이런 일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일은 교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것은 지나간 십 수년간에 걸친 ‘세뇌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에 지도교수 노릇 못하겠다고 땡개치고 일어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 자조적인 고소만 머금을 수밖에 없

었다. 필자를 방문한 그 졸업생은 장학금 배정뿐 아니라(그건 약과다) 아무 날까지 아무 문제 학생을 책임지고 면담해야 하는 분담 지도교수의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봉급도, 연구비도, 강의료도 아닌 학생 지도비의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 금액을 교수가 받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오해 없기 바란다. 필자는 학생 생활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교수가 그런 일을 맡는다는 것은 교수의 꼴을 우습게 만들 뿐 아니라 능률적이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얘기가 나오면 으레 언성을 높이는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국민학교 교사로부터 고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교실에서 가르칠 뿐 아니라, 도시락 혼식 여부 조사, 신발 주머니 조사, 교련복 조사, 흡연 여부 조사, 두발 조사, 거리질서 캠페인, 거리 청소 감독 및 솔루션 수범, 가정 방문, 각종 연수 참석 등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맡아서 싫단 말 별로 없이 해내고 있는데, 대학교수란 죽죽은 뒤통가 별달라서 일주일에 고작 아홉 시간만 가르치고 그 이상 가르치면 초과 수당 받고 글 쓰는 시

능하면서 연구비 따로 받고 방학은 되게 긴 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로 노는 날도 많은데 봉급은 교사의 몇 배가 되는데도 학생 단속 좀 하려면 불평이고 또 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교사나 교수나 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교수는 별다른 대접을 받는지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교수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대꾸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교사와 교수의 역할 차이가 왜 생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

교사는 사범교육 또는 교직교육, 또는 교직 연수를 통해서 학생의 생활 지도 방법을 터득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지식 습득보다도 생활 지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학급 제도와 학급 담임 제도는 지식 습득을 능률화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생활 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사는 그런 제도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받고 또 경험을 쌓은 이들이다. 그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생 상담을 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으며 말 잘 안 듣는 학생 다루는 법, 학부모 면담법, 상벌 적절히 주는 법, 각종 보고서 쓰는 법, 학급 일지 쓰는 법, 그리고 교안 작성법 등을 모두 교직 훈련 과정에서 배웠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물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삼고 있다. 대체로 국민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가지 담당 과목을 일정 수준까지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교사는 미리 주어진 교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정해진 교과서를 잘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가르쳐 나가기로 되어 있다. 교사 개인의 창의력에 따라 교육 내용의 변화가 적지 않겠지만, 어쨌든 미리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다루는 일이므로 교과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식 영역을 연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정해진 교과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식을 교실 안

에서 다루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교수는 사범교육, 교직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다. 사범대학 출신이거나 중등 교사 출신으로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일찌기 익힌 사범교육이나 교직교육은 중등교육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을 상대하는 데에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경우도 적지 않다. 대체로 교수는 학생 상담법, 학부모 방문법, 학생 신상 파악법, 학생 감독법, 장학금 배정법, 교과 진행법, 교안 작성법, 성적 처리법 등 교사들에게는 익숙한 모든 방법에 매우 서툴다. 서투른 것을 하라고 하니 실수도 많고 불공정하기도 쉽다. 그래서 자연 그런 일을 시키는 학교 당국과 관청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도 되는 것이다.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라 실례를 범할지도 모르겠으나, 고등교육론을 연구하는 어떤 이가 대학교수도 결국 '교사'인 만큼 중등 교사처럼 철저한 사범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딴 후에 '대학 교사'로 발령돼야 옳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전공학 교수는 '유전공학 교육법' 같은 각과 지도법 이외에 '학생 상담법', '교육 심리학', '교육 평가법', '교육 철학' 등 고등 교직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하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문교부 또는 과학기술처 같은 데서 유전공학 교과서와 교사 지침서까지 정해 주면 대학의 유전공학 교사는 교육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바람직한 교사가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별 놀라운 생각을 다 해내는 미국에서 교수들을 상담법, 심리학 등으로 재훈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일부 실시해 보았다고도 하는데 버릇 못 고치는 교수들의 아집 때문에 유감되게도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한다.

교수와 교사를 구별하는 것은 그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는 공식적인 사범교육이나 교직교육을 거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전공 학문을 어느 수준 이상 연구하기로 되어 있다. 교사는 교육자이고 대체로 학자는 아

니지만 교수는 학자이고 대체로 교육자는 못 된다. 물론 둘을 겸하는 드문 경우도 있다. 교육은 성직이라 하지만, 학문은 성직까지는 되지 못한다. 교수의 기본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과는 달리 학문 연구 수준이 얼마쯤에 이르렀다는 증서의 하나이지, 학생의 교육을 위한 각종 방법과 지식을 터득하고 있다는 증명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 어눌한 교사는 거의 없겠지만 어눌하면서도 유명한 교수가 아주 적지는 않다.

교수는 학문 연구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의 '교사'로 임명되지만, 교사인 만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상대는 20세 전후의 청년과 자기처럼 학문 연구를 하겠다는 학자 지망생들(대학원 학생들)이고, 교과목과 교육 내용도 대강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저학년의 교양과목 이외에는 교과서나 지침서나 각과 지도법이 없으므로 대학 교사는 개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체로 학문 연구자로서의 연구 내용의 일부가 강의에 포함되지만, 연구가 특수하고 깊을수록 개인적 연구 내용과 교육 내용은 거리가 벌어지는 수밖에 없다. 최첨단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학생에게라도 자기의 연구 결과 전부를 쏟아놓기는 힘들다. 학부 학생은 물론 박사과정 학생도 아직 그 지식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의 연구 내용이 강의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유아원으로부터 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즉 교수의 연구는 그 사회의 모든 교육 내용을 창출하고 견실히 하는 원천이 된다. 교육 상담학, 각과 지도법 등 교사 훈련의 방법도 그런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 교수의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 없이 연구이어야 한다. 강의는 연구 결과의 일부를 조절하여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예로부터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지식을 남에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까지도 소유한다고 믿어 왔다. 아는 이는 알려 주

는 제주도 있다는 말이다. 지식은 지식의 공유 능력을 포함한다는 말이다. 옳은 말 같다. 아무리 어눌한 교수라도 그의 연구 내용이 우수하다면 그에게서 지식을 전달 받은 우수한 제자가 많게 된다. 교수에게 정해진 교수법은 실상 불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근래에 교수들에게 학생 생활 지도라는 초·중등 교사 교유의 기능이 강요되고 있다. 대상이 초·중등 학생이 아닌 청년인 대다가 초·중등 학교처럼 학급 편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배정하여 지도교수, 즉 담임을 맡기는 대다가, 학생 생활 지도 방법을 전혀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학생 생활 지도는 거의 완벽하게 비능률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학은 교수가 연구하고 강의만 하면 그뿐인 장소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청년들의 생활 지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중등 학교에서의 방법과는 매우 달라야 한다.

우리는 외국의 교육 제도를 많이 따오면서도 대학의 생활 지도 방법은 거의 따오지 않았다. 외국 대학에는 학생 생활 지도 전담 전문가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대학의 학생처는 일정 기간 보직 발령을 받은 학생처장과 몇 사람의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 대학에는 학생처장도 생활 지도 전문가이고 대개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생활 지도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내고 있고, 장학금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 부처에서 다룬다. 한국의 대학은 교수들끼리 연구, 교육, 생활 지도, 재정, 경영, 관리 등 일체를 임시로 분담하여 비전문적으로 처리해도 될 단계를 훨씬 벗어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고유 기능 이외에 학생 생활 지도라는 강요된 일이 다만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그런 일이 교수에게는 너무나도 서툴고 비능률적이어서 학생들에게 크게 불만스럽다는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